

뉴스홈 | **최신기사** 

# <프로야구> 불펜 싸움이 플레이오프 승부 가른다

송고시간 | 2008-10-13 11:43











이충원 기자 기자페이지

<프로야구> 불펜 싸움이 플레이오프 승부 가른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빠른 투수 교체와 `벌떼 불펜' 투입.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격돌하는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는 공통점이 있다. 선발 10승 투수가 없고, 불펜이 강 하다는 점이다.



삼성 에이스 배영수가 9승8패에 그친 것을 시작으로 이상목(6승5패), 전병호(6승6패)가 모두 선발 체면을 지키지 못했 다. 윤성환(10승11패)과 정현욱(10승4패)이 10승 턱걸이를 했지만 구원승이 포함돼있다.

두산도 마찬가지. 랜들(9승9패), 김선우(6승7패), 이승학(6승5 패), 이혜천(7승5패)은 시즌 내내 들쭉날쭉했고, 오히려 불펜 전 담요원인 이재우(11승3패2세이브)가 팀 내 최다승을 올렸을 정 도였다

반면 권혁, 안지만, 오승환이 버티는 삼성이나 이재우, 김상현, 임 태훈, 정재훈으로 이어지는 두산이나 다른 어느 구단보다 불펜이 두텁기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두 팀이 격돌하는 플레이오프는 선발이 3~4이닝만 던 진 뒤 곧바로 불펜을 무더기로 투입하는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는 이들이 많다.

김경문 두산 감독은 미리 "선발을 길게 끌고 가기 어렵다. 일찌감치 불펜진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승부처 에서 이재우, 김상현, 임태훈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삼성도 마찬가지. 선동열 감독은 롯데와 준플레이오프에서도 1차전만 배영수에게 5이닝을 맡겼을 뿐 2, 3차전에서는 선발을 일찌감치 강판시킨 뒤 불펜을 총가동하는 방법으로 재미를 봤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정현욱, 안지만, 권혁 등의 중용이 예상된다.

하지만 불펜 대결이라고는 해도 선발이나 마무리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7전4선승제로 진행되는 플레이오 프에서 선발이 너무 일찍 무너지면 다음 경기 마운드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발이 5이닝 이상을 버틸 수 있느 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고, 마운드의 높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전문가도 있다.

어느쪽이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효봉 KBSN 해설위원은 삼성의 우위를 점쳤다. "단기전이라는 점 을 고려할 때 두산 불펜이 크게 뒤지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두산 마무리 정재훈이 오승환보다 불안하다는 게 문제"라 고 말했다.

허구연 MBC 해설위원은 거꾸로 두산의 우위에 점수를 줬다. 그는 "7차전까지 가면 삼성이 힘들 것"이라며 "선동열 감 독이 자주 바꾸는 스타일이니까 삼성 불펜이 쉽게 지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chungwon@yna.co.kr





















###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체포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자 > 2008/10/13 11:43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 02:22

링컨 등 후보군"

현장 영상 →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결국 우크라에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9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40 힐 예정"

뭐하고 놀까? ##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별뉴스** 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 앱
 보다시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고,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nnev